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 - 腑方중심으로

심성흠 · 감철우* · 박동일 · 변미권 · 김상현 · 백상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Study on Hwa-acupuncture Theory

Sung Heum Sim, Cheol Woo Kam*, Dong Il Park, Mi Kwon Byun, Sang Heon Kim, Sang In Bae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eui University

The theory of Hwa Acupuncture Therapy (HAT), called Hwa Chim Therapy, is a part of the Five Elements Theory unique to Korea. H99AT, created and developed by Jaehoon Song, integrates the victor-vanquished as well as the son-mother relationship of the Five Elements of breakdown and restoration of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And also, it provides resources and data on The seventy fifth Difficulty Nan(75難), The sixty ninth Difficulty Nan(69難) of Classic on Difficulty - Nan Jin 75, 69. HAT establishes objectiveness and accuracy of diagnosis based upon the traditional method and procedure of pulse taking. In HAT, a person's state of illness is diagnosed by applying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palpitation of the pulse. It is the fact that the pulse varies according to the state, and that HAT treatment has proven the positive results by using the victor-vanquished relationship of Classic on The Nan Jin 75. On the basis of this, it is necessary to add the sixty ninth Difficulty(69難), to research the theory of the generation of the Five Element. Despite a the concise and simple theory, Hwa Chim is very effective in treating the wide range of illness, and thus it has gained an increasing attention of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traditional Korean oriental medicine. However, it is the first theoretical attempt to the clinical research and scientific methodology of Ohaeng(Five) Hwa Chim, and more active Hwa Acupuncture R&D is being conducted nationwide.

Key words : Hwa-acupuncture(和鍼法), Ohaeng-acupuncture(五行鍼法), Classic on Difficulty-Nan Jing(難經), The seventy fifth Difficulty(75難), The sixty ninth Difficulty(69難), The generation of the five Element(五行相生)

서 론

鍼灸療法은 陰陽學說 經絡學說 臟象學說 등 동양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하여 體表上의 일정한 부위에 각종 鍼灸와 조작방법을 運用하여 물리적 자극을 주어 생체에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동양의학 의료기술의 한 분야이다. 이 중 五行鍼은 陰陽五行의 相生 相克의 原理를 이용하여 肘膝以下에 분포한 十二經脈의 五行屬성과 부합하는 穴을 이용하여 臟腑와 經絡의 陰陽氣血의 均衡을 잡아줌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鍼法이다.¹⁾

五行鍼法은 조선시대 선조에 이르러 畝岩道人이 이러한 相生關係와 相克關係를 결합하여 自他經에서 補瀉穴을 取하는 畝岩陰陽五行鍼法을 창안하여 후세에 五行鍼의 基本이 되고 있다.²⁾

최근 한의학계는 과거의 體鍼이나 天應穴수준에서 벗어나 董氏鍼이나 一鍼 和鍼 平鍼 畝岩五行鍼 八體質鍼 등의 비교적 經絡學說이나 臟腑學說 陰陽五行說 등을 바탕으로 하는 五行鍼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응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³⁾

이 중 五行和鍼法은 백단 송재훈 선생님이 內經 및 難經 75難, 69難의 陰陽의 盛衰 및 五行의 相生 相克關係를 集大成하여 만든 五行鍼法으로 이론이 간단하고 분명하여 임상에 다수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臟方중심으로)에 이어

* 교신저자 : 감철우,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drkam@paran.com, · Tel : 051-850-8650

· 접수 : 2008/06/16 · 수정 : 2008/07/30 · 채택 : 2008/09/17

- 1) 감철우, 박동일.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臟方중심으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19권 2호, pp.363(2005).
- 2) 감철우, 박동일.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臟方중심으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19권 2호, pp.363(2005).
- 3) 감철우, 박동일.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臟方중심으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19권 2호, pp.363(2005).

서 五行和鍼法の 치료법중의 하나인 腑方を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론

1. 연구방법

본 논고는 백단 송재훈 선생의 저서인 <和鍼法>⁴⁾을 텍스트로 삼고 難經 75難을 중심으로 한 臟方に 이어서 難經 69難을 근거로 한 腑方を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五行和鍼法(腑方)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 臟方중심으로>에서 臟方は 難經 75難의 이론에 따라 東方이 實하면 西方이 虛하고 그래서 南方을 瀉하고 北方을 補하게 된다. 五臟을 중심으로 한 臟方에서는 相生理論은 없으며 철저히 相克理論으로 그 결론이 도출된다. 결국 五行和鍼法の 臟方は 難經 75難을 근거로 만들어지며 比較脈診法에 의해서 木實金虛 火實水虛 土實木虛 金實火虛 水實土虛 5가지로 분류된다.

六腑를 중심으로 한 五行和鍼法の 腑方は 臟方과는 다른 이론에 의해서 도출된다. 腑方は 難經 69難을 근거로 하며 相生理論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五行和鍼法の 臟方は 難經 75難에 근거한 相克理論으로 만들어지고, 五行和鍼法の 腑方は 難經 69難을 근거로 한 相生理論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면 五臟은 相克의 理致로 六腑는 相生의 理致를 따르는데 그 根據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此事難知

此事難知⁵⁾에서 말하기를 天, 六腑는 氣, 表이다. 其本體는 上에 있지만, 其用은 上에서 下로 作用한다. 地, 五臟은 血, 裏이다. 其本體는 下에 있지만, 其用은 下에서 上으로 作用한다. 이것이 陰陽 相互간에 作用이다. 곧 天氣는 左側으로 돌면서 下降하고, 地氣는 右側으로 돌면서 上昇한다. 이렇게 氣와 血이 서로 和하고, 表와 裏가 서로 靜하고, 上과 下가 서로 通한다. 天地가 그러하고 人身도 하나의 小天地이니 같은 理致이다.⁶⁾

李梴의 醫學入門⁷⁾ 註에는 “氣屬陽 象天 左旋 血屬陰 象地 右旋 血從氣行 其體 靜而不動故 氣血如磨形 上轉而西 下安不動 雖云不動 自有東行之意 以其上動下靜 不得不爾也.”라고 하면서 이것은 고로 ‘河圖洛書’라고 했다.

(2) 河圖洛書

河圖와 洛書에는 時間的인 宇宙의 變化와 空間的인 天地의 實상이 陰陽五行의 原理에 의해 表現되어 있다. 우선 河圖와 洛書를 그림 1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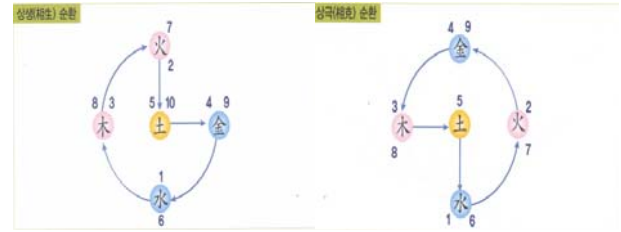


그림 1. 河圖洛書

河圖와 洛書는 모두 白圈과 黑圈의 數로 表現되어 있으며 白圈은 陽數를, 黑圈은 陰數를 나타내고 있다. 1에서 10까지의 自然數의 數列에 있어서 1에서 5까지를 生數⁸⁾라 하고 6에서 10까지를 成數⁹⁾라 한다.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河圖는 다섯 개의 生數(陽 - 1, 2, 3, 4, 5)로, 다섯 개의 成數(陰 - 6, 7, 8, 9, 10)를 통솔하되 함께 같은 方位에 處하니 대개 그 完全함을 들어 사람에게 보여주어 常數의 體를 말하여 주고 있고, 洛書는 다섯 개의 奇數(陽 - 1, 3, 5, 7, 9)를 4개의 偶數(陰 - 2, 4, 6, 8)를 統率하여 각각 자신의 자리에 居하니 대개 陽에 主하여 陰을 통솔하여 變數의 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자체만을 볼 때 河圖는 陰에 洛書는 陽에 배속된다.

또한 河圖는 相生의 原理를 說明하고 있고, 洛書는 相克의 原理를 나타내고 있다. 五行의 性質은 木, 火, 土, 金, 水로 區分이 된다. 이들 사이의 關係를 相生, 相克이라 한다. 河圖를 보면 北方의 水가 東方의 木을 生하고 이어 順次的으로 左旋하면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의 過程으로 發展해 나가고 있으며, 洛書를 보면 北方의 水가 西方의 火를 克하고 이어 順次的으로 右旋하면서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의 過程으로 進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河圖는 天地生成의 體, 相生을 보여주고 있으며, 洛書는 萬物 發展의 用, 相克을 나타내고 있다.

(3) 臟病腑病의 傳變(難經 53, 54難)

臟病腑病의 傳變원리는 難經 53, 54難에 보면 잘 나와 있다. 難經 53難¹⁰⁾을 보면 七傳¹¹⁾하면 죽고, 間臟¹²⁾하면 산다고 하였

4) 송의 저서 和鍼法은 크게 入門편과 和鍼法편으로 나뉜다. 入門편에서는 五俞穴 相合 脈診 刺鍼法을 설명하였고, 和鍼法편에서는 75難과 69難을 설명한 후 각각의 체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5) 此事難知는 元나라 王好古 先生에 의해 1308년에 지어졌다. 스승인 李東垣 先生의 이론을 편집한 것으로 기초이론에 속하는 經絡 臟腑 病理 臨床과 有關한 變證 治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傷寒 六經證治에 대한 서술이 특히 상세하면서 상당할 정도로 李東垣의 學說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6) 此事難知曰 天六腑氣表 其體在上 其用在下 地五臟血裏 其體在下 其用在上 言陰陽互相爲用 則天氣左旋而下降 地氣右旋而上昇 氣血和 表裏靜 上下通 如天地泰然 人身其小天地乎
7) 중국 명나라 때 李梴이 지은 의학 서적이다. 의학입문은 內集 9권, 外集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8) 生數란 創造의 根本數로서 보이지 않는 生命의 本質을 나타내며 萬物의 運命을 決定하므로 命數라고도 부른다.
9) 成數란 事物을 完成하는 數로써 完成된 事物은 形體를 이루므로 成數는 形數 또는 物數라고도 號稱한다.
10) 五十三難曰 經言 七傳者死 間臟者生 何謂也 然 七傳者 傳其所勝也 間臟者 傳其子也 何以言之 假令心病傳肺 肺傳肝 肝傳脾 脾傳腎 腎傳心 一臟不再傷 故言七傳者死也 假令心病傳脾 脾傳肺 肺傳腎 腎傳肝 肝傳心 是爲子母相傳 竟而復始 如環無端 故曰生也
11) 克하는 臟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역대 주가들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 (難經集注)에서 呂廣은 “七은 當爲次字之誤也라 此下에 有間字하니 卽知上當爲次라”고 하였다. 滑壽는 <難經本義> 紀氏의 말을 인용하여 “自心而始하여 以次相傳하여 至肺之再하면 是 七傳也라”고 하였다. <難經校注>에서도 여광의 설을 상세하게 고증하였는데 眞은 차와 통하며 또 漆을 차로 쓰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靈樞 病傳>에 “諸病以次相傳하니 如是者는 皆有死期하니 不可刺也라 間一臟及二三四臟者는 乃可刺也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내용과 서로 같다. <難經譯釋>에서도 呂廣의 설이 옳다고 하였다. “次傳”이 타당하다.
12) 臟을 사이한다. 臟을 건너뛴다. 相生의 順序대로 전해지는 것이다. 火 金 木 土 水와 같이 相克의 順序대로 전변하는 것이 ‘七傳(次傳)’이라면 그 順序에서 하나의 臟을 건너뛰고 전해지는 것이다. 즉, 火 土 金 水 木의 順序이다.

다. 여기서 말하는 七傳은 勝하는 곳으로 傳해지는 것이고, 間臟은 子로 전해지는 것이다. 가령 心病이 肺로 전해지면, 肺는 肝으로 전하고, 肝은 脾로 전하고, 脾는 腎으로 전하고, 腎은 心으로 전한다. 한 臟은 두 번 傷하지 못하며(一臟不再傷)¹³⁾ 七傳하면 한 臟이 두 번 傷하는 것이므로 죽는다고 한 것이다. 또한 만약 心病이 脾로 전해지면, 脾는 肺로 전하고, 肺는 腎으로 전하고, 腎은 肝으로 전하고, 肝은 心으로 전하게 된다. 이것은 子母가 서로 전하는 것이므로 끝나면 다시 시작하게 되어 산다고 한 것이다.

이 섭리를 難經 54難¹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臟病은 치료하기 어렵고, 腑病은 치료하기 쉽다고 했다. 왜냐하면 臟病 이기는 곳(勝)으로 전해지고, 腑病은 子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臟病腑病의 傳變원리는 相生相克의 이치에 따른다. 그리하여 難經 54難의 臟病과 腑病의 기준에서 볼 때, 難經 53難의 間臟者 子母相傳은 腑病이 되다.

따라서 假令心病傳脾 脾傳肺 肺傳腎 腎傳肝 肝傳心을 假令小腸病傳胃 胃傳大腸 大腸傳膀胱 膀胱傳膽 膽傳小腸으로 볼 수 있다.

2. 五行和鍼法에 따른 難經 69難의 해석

難經 69難¹⁵⁾에서 보면 虛者補之 實者瀉之 不實不虛 以經取之라고 했다. 즉, 虛한것은 補하고, 實한것은 瀉해주며, 虛하지도 實하지도 않은 것은 經으로써 그것을 取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病의 治療의 大法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難經 69難에서는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 不實不虛 以經取之者 是正經自病 不中他邪也 當自取其經 故言以經取之”라고 했다. 즉, 經에 ‘虛한 것은 補한다’라는 것은 虛할 때는 그 母를 補하라는 뜻이고, ‘實한 것은 瀉한다’라는 것은 實할 때는 그 子를 瀉하라는 뜻이다. 또한 ‘虛하지도 實하지도 않은 것은 經으로써 그것을 取한다’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은 邪를 맞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마땅히 그 經만 取하면 되기 때문에 ‘經으로써 그것을 取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難經本義¹⁶⁾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是 69難에서 제시된 것이며,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는 75難에서 제시된 것이다. 69難에서 제시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是 五行의 相生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75難¹⁷⁾에서 제시한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는 五行의 相克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결국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是 內經의 虛實補瀉의 원칙에

五行相生개념을 결합시킨 것이다.

3. 五行和鍼法の 腑方 처방

1) 腑圖

難經 75難에 의해서 완성된 五臟圖는 그림 2와 같다. 이것을 기본으로 六腑의 虛實圖는 五行의 天干相合¹⁸⁾¹⁹⁾에 의해 類推가 가능해진다. 75難에 의해 肝實 肺虛 心實 腎虛는 쉽게 알 수 있으며 虛實을 알 수 없는 脾는 中膈장부로 五臟의 虛實圖가 구성되어 진다. 天干相合에 의해 類推해보면 小腸虛 胃實 大腸實 膀胱實 그리고 역시 虛實을 알 수 없는 膽 이렇게 腑의 虛實圖가 나온다.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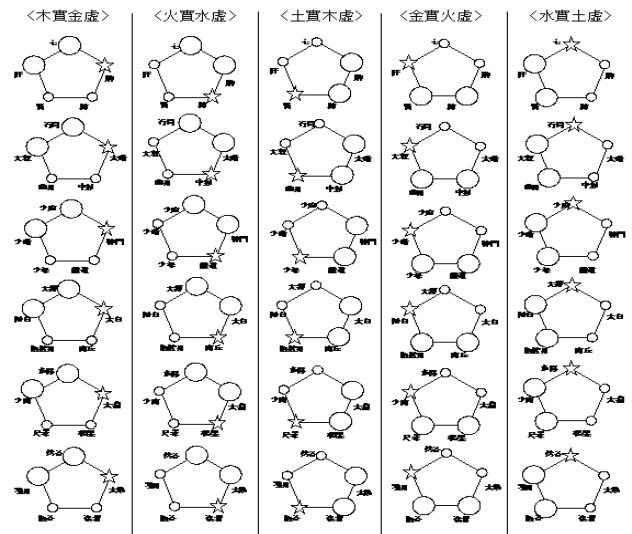


그림 2. 五行의 虛實圖(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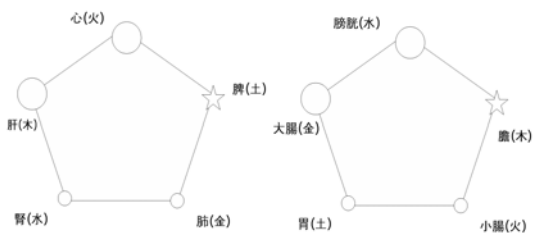


그림 3. 五臟 - 六腑虛實圖

여기에서 難經 69難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先補後瀉의 原則에 의해서 治療를 하려고 하면 어떤 基準이 필요하다. 69難에는 75難처럼 東方이 實하면 西方이 虛라는 基準이 없다.

18) 天干이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를 말한다. 이것은 十干이라고도 하는데 十이란 河洛의 象數論에서 볼 때 우주의 기본수며 완성수가 된다. 甲乙은 木이 되고 丙丁은 火가 되며 戊己는 土가 되고 庚辛은 金이 되며 壬癸는 水가 되어 十干은 곧 五行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五行은 天의 變化를 뜻한다.

木	火	土	金	水
乙	丁	己	辛	癸
肝	心	脾	肺	腎
金	水	木	火	土
庚	壬	甲	丙	戊
大腸	膀胱	膽	小腸	胃

19)

13) 하나의 臟은 두 번 傷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心病이 相克의 순서로 전해질 경우 心 肺 肝 脾 腎 心 肺의 순서로 전해진다. 心에서 첫 번째로 邪氣를 받은 肺는 두 번 變 순환에서 다시 邪氣를 받게 되는데 두 번이나 邪氣에 傷할 수 없고, 두 번 傷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14) 五十四難曰 臟病難治 腑病易治 何謂也 然 臟病所以難治者 傳其所勝 腑病易治者 傳其子也 與七傳間臟同法也
 15) 六十九難曰 經言虛者補之 實者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 何謂也 然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者 是正經自病 不中他邪也 當自取其經 故言以經取之
 16) 難經本義는 元나라 滑壽가 難經의 뜻을 설명한 책이다.
 17) 七十五難曰 經言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然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東方木也 西方金也 木欲實 金當平之 火欲實 水當平之 土欲實 木當平之 金欲實 火當平之 水欲實 土當平之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瀉南方火 補北方水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예를 들어 小腸이 虛하다. 虛者補其母 하는데 母인 膽은 중립장부이다. 그래서 基準이 될 수 없다. 다시 膀胱이 實하다. 實者瀉其子한다. 그런데 子인 膽은 중립장부라서 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大腸이 實하다. 그러면 膀胱이 實하므로 實者瀉其子가 가능해진다. 胃가 虛하다. 그러면 虛者補其母 하는데 母인 小腸은 虛다. 이것도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75難의 東方이 實하고 西方이 虛할 때 瀉南方 補北方한다는 基準처럼 69難에서도 實者瀉其子 虛者補其母하는 條件을 충족하는 條件이 필요해진다. 이 條件이 바로 小腸이 虛하고 膀胱이 實할 때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이 무리 없이 적용이 된다.

(1) 木實金虛人(腑方 처방)

木實金虛人의 六腑의 虛實圖는 첫 번째 腎이 虛해지는 순간 膀胱은 實해졌다. 두 번째 心이 實해지는 순간 小腸은 虛해졌다. 셋째 肺가 虛해지는 순간 大腸은 實해졌다. 넷째 陰陽說과 相合理論에 의해서 胃가 虛해졌다. 순서로 번호를 매기면 膀胱實 1번, 小腸虛 2번, 大腸實 3번, 胃虛 4번, 虛實을 알 수 없는 중립장부 膽이 된다. 여기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원칙에 의해서 4번 胃가 虛하고 3번 大腸이 實할 때라는 基準을 잡고, 다시 先補後瀉의 원칙에 의해서 4번 胃가 虛할 때가 우선이 되어 胃가 虛하면 虛者補其母하여, 小腸을 補하는데 小腸은 이미 虛하므로 小腸을 補할 수 있다. 그리고 小腸의 어떤 穴을 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가하면 小腸이 火에 속하므로 小腸의 火穴인 陽谷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 3번 大腸이 實할 때 膀胱은 이미 實하므로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附合이 되며 膀胱이 水에 속하므로 膀胱의 水穴인 通谷을 瀉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처방인 腑 1方이 된다. 그리고 胃가 虛하고 大腸이 實하므로 胃의 土穴인 三里를 補하고 大腸의 金穴인 商陽을 瀉할 수 있다. 이것이 腑 2方이 된다.

- ① 陽谷 - 補(火之火) - 通谷 瀉(水之水)
- ② 足三里 - 補(土之土) - 商陽 瀉(金之金)

(2) 火實水虛人(腑方 처방)

火實水虛人의 六腑의 虛實圖는 첫 번째 肝이 虛해지는 순간 膽은 實해졌다. 두 번째 脾가 實해지는 순간 胃는 虛해졌다. 셋째 腎이 虛해지는 순간 膀胱은 實해졌다. 넷째 陰陽說과 相合理論에 의해서 大腸이 虛해졌다. 순서로 번호를 매기면 膽實 1번, 胃虛 2번, 膀胱實 3번, 大腸虛 4번, 虛實을 알 수 없는 중립장부 小腸이 된다. 여기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원칙에 의해서 4번 大腸이 虛하고 3번 膀胱이 實할 때라는 基準을 잡고, 다시 先補後瀉의 원칙에 의해서 4번 大腸이 虛할 때가 우선이 되어 大腸이 虛하면 虛者補其母하여, 胃를 補하는데 胃는 이미 虛하므로 補할 수 있다. 그리고 胃는 土에 속하므로 胃의 土穴인 三里를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 3번 膀胱이 實할 때 膽은 이미 實하므로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附合이 되며 膽이 木에 속하므로 膽의 木穴인 足臨泣을 瀉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처방인 腑 1方이 된다. 그리고 大腸이 虛하고 膀胱이 實하므로 大腸의 金穴인 商陽을 補하고 膀胱의 水穴인 通谷을 瀉할 수 있다. 이것이 腑 2方이 된다.

- ① 足三里 - 補(土之土) - 足臨泣 - 瀉(木之木)
 - ② 商陽 - 補(金之金) - 通谷 - 瀉(水之水)
- (3) 土實木虛人(腑方 처방)

土實木虛人의 六腑의 虛實圖는 첫 번째 心이 虛해지는 순간 小腸은 實해졌다. 두 번째 肺가 實해지는 순간 大腸은 虛해졌다. 셋째 肝이 虛해지는 순간 膽은 實해졌다. 넷째 陰陽說과 相合理論에 의해서 膀胱은 虛해졌다. 순서로 번호를 매기면 小腸實 1번, 大腸虛 2번, 膽實 3번, 膀胱虛 4번, 虛實을 알 수 없는 중립장부 胃가 된다. 여기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원칙에 의해서 4번 膀胱이 虛하고 3번 膽이 實할 때라는 基準을 잡고, 다시 先補後瀉의 원칙에 의해서 4번 膀胱이 虛할 때가 우선이 되어 膀胱이 虛하면 虛者補其母하여, 大腸을 補하는데 大腸은 이미 虛하므로 補할 수 있다. 그리고 大腸이 金에 속하므로 大腸의 金穴인 商陽을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 3번 膽이 實할 때 小腸은 이미 實하므로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附合이 되며 小腸이 火에 속하므로 火의 火穴인 陽谷을 瀉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처방인 腑 1方이 된다. 그리고 膀胱이 虛하고 膽이 實하므로 膀胱의 水穴인 通谷을 補하고 膽의 木穴인 臨泣을 瀉할 수 있다. 이것이 腑 2方이 된다.

- ① 商陽 - 補(金之金) - 陽谷 - 瀉(火之火)
- ② 通谷 - 補(水之水) - 足臨泣 - 瀉(木之木)

(4) 金實火虛人(腑方 처방)

金實火虛人의 六腑의 虛實圖는 첫 번째 脾가 虛해지는 순간 胃는 實해졌다. 두 번째 腎이 實해지는 순간 膀胱은 虛해졌다. 셋째 心이 虛해지는 순간 小腸은 實해졌다. 넷째 陰陽說과 相合理論에 의해서 膽은 虛해졌다. 순서로 번호를 매기면 胃實 1번, 膀胱虛 2번, 小腸實 3번, 膽虛 4번, 虛實을 알 수 없는 중립장부 大腸이 된다. 여기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원칙에 의해서 4번 膽이 虛하고 3번 小腸이 實할 때라는 基準을 잡고, 다시 先補後瀉의 원칙에 의해서 4번 膽이 虛할 때가 우선이 되어 膽이 虛하면 虛者補其母하여, 膀胱을 補하는데 膀胱은 虛하므로 補할 수 있다. 그리고 膀胱이 水에 속하므로 膀胱의 水穴인 通谷을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 3번 小腸이 實할 때 小腸의 子인 胃는 이미 實하므로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附合이 되며 胃가 土에 속하므로 土의 土穴인 足三里를 瀉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처방인 腑 1方이 된다. 그리고 膽이 虛하고 小腸이 實하므로 膽의 木穴인 臨泣을 補하고 小腸의 火穴인 陽谷을 瀉할 수 있다. 이것이 腑 2方이 된다.

- ① 通谷 - 補(水之水) - 足三里 - 瀉(土之土)
- ② 足臨泣 - 補(木之木) - 陽谷 - 瀉(火之火)

(5) 水實土虛人(腑方 처방)

水實土虛人의 六腑의 虛實圖는 첫 번째 肺가 虛해지는 순간 大腸은 實해졌다. 두 번째 肝이 實해지는 순간 膽은 虛해졌다. 셋째 脾가 虛해지는 순간 胃는 實해졌다. 넷째 陰陽說과 相合理論에 의해서 小腸은 虛해졌다. 순서로 번호를 매기면 大腸實 1번, 膽虛 2번, 胃實 3번, 小腸虛 4번, 虛實을 알 수 없는 중립장부 膀胱이 된다. 여기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원칙에 의해서 4번 小腸이 虛하고 3번 胃가 實할 때라는 基準을 잡고, 다시 先補後

瀉의 원칙에 의해서 4번 小腸이 虛할 때가 우선이 되어 小腸이 虛하면 虛者補其母 하여, 膽을 補하는데 膽은 虛하므로 補할 수 있다. 그리고 膽은 木에 속하므로 膽의 木穴인 臨泣을 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 3번 胃가 實할 때 胃의 子인 大腸은 이미 實하므로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附승이 되며 大腸은 金에 속하므로 金의 金穴인 商陽 瀉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처방인 腑 1方이 된다. 그리고 小腸이 虛하고 胃가 實하므로 小腸의 火穴인 陽谷을 補하고 胃의 土穴인 足三里를 瀉할 수 있다. 이것이 腑 2方이 된다.

① 足臨泣 - 補(木之木) - 商陽 - 瀉(金之金)

② 陽谷 - 補(火之火) - 足三里 - 瀉(土之土)

2) 부가처방

膽小腸胃大腸膀胱을 대표하는 金水木火土가 상기의 虛實을 나타낸다면 각 腑 안의 五俞穴도 金水木火土를 대표하므로 상기의 虛實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木實金虛人의 경우 膀胱의 五俞穴인 至陰 通谷 束骨 崑崙 委中 중 崑崙 委中은 虛하고, 至陰 通谷은 實할 것이다. 그리고 虛實을 가름할 수 없는 束骨이 있다.

이것을 시간적 虛實의 추이로 보면 崑崙 > 委中 > 束骨 > 通谷 > 至陰이 된다. 小腸을 예로 들면 小腸의 五俞穴인 少澤 前谷 後谿 陽谷 小海 중 陽谷 後谿은 虛하고, 少澤 前谷은 實하다. 그리고 가름할 수 없는 小海가 있다. 이것을 시간적 虛實의 추이로 보면 陽谷 > 小海 > 後谿 > 前谷 > 少澤이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木實金虛人(腑方)에서 중립장기인 膽 자체는 不中他邪해서 虛實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그 안의 五俞穴은 역시 陽輔 陽陵泉은 虛하고, 足竅陰 俠谿은 實하다 그리고 木穴인 虛實을 알 수 없는 臨泣이 있다.

각각 그림 4와 같은 五行의 虛實圖(腑)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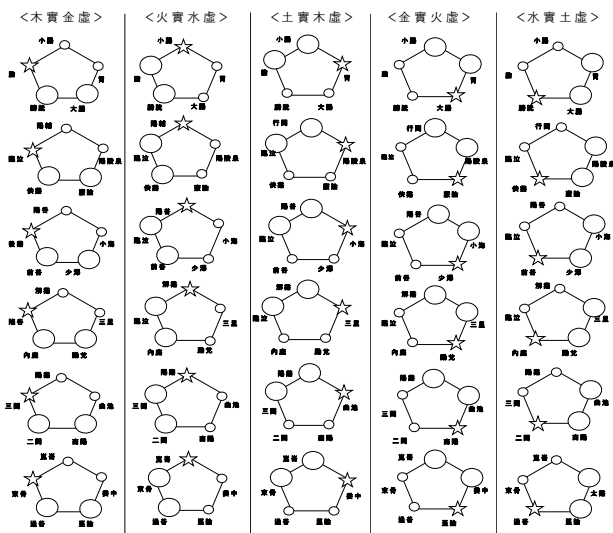


그림 4. 五行의 虛實圖(腑)

3) 腑方의 임상적 運用

木實金虛人의 경우 六腑인 膽 小腸 胃 大腸 膀胱 각각의 火土穴은 虛하고, 金水穴은 實하다. 膽의 陽輔 陽陵泉, 小腸의 陽谷 小海, 胃의 解谿 足三里, 大腸의 陽谿 曲池, 膀胱의 崑崙 委中

은 虛할 것이며, 膽의 足竅陰 俠谿, 小腸의 少澤 前谷, 胃의 厲兌 內庭, 大腸의 商陽 二間, 膀胱의 至陰 通谷은 實할 것이다. 만약 木實金虛人이 진단을 통하여 小腸의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이론적으로 陽谷 小海를 補하고, 少澤 前谷을 瀉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木實金虛人의 腑의 虛實圖를 그대로 小腸에 적용한다고 할 때 前谷이 제일 먼저 實해지고 두 번째로 陽谷이 虛해졌으며 세 번째로 少澤이 實해지고 네 번째로 小海가 虛해졌을 것이다. 여기서 69難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先補後瀉의 원칙에 따라 陽谷을 補하고 前谷을 瀉하는 것이 우선 腑 1方의 원칙에 附승한다. 그리고 小海를 補하고 少澤을 瀉하는 것이 腑 2方의 원칙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木實金虛人이 小腸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진단되면 먼저 臟 1方인 陰谷 補少府 瀉 腑 1方인 陽谷 補 通谷 瀉를 한 다음 (臨床家들은 임의의 판단에 따라 위의 臟 1方 腑 1方 중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小腸의 문제를 제일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陽谷을 먼저 補한다. 그 다음 前谷을 瀉할 수 있다. 小海와 少澤을 補하고 瀉할 수 있으나 이것은 小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陽谷을 補하고 前谷을 瀉하는 것 보다는 그 힘이 많이 떨어진다.

임상적 응용 시 어느 臟腑의 문제가 제일 根源인지 알 수 있는 진단을 위해서는 經絡의 유주 및 背俞穴 腹募穴의 확인 및 <靈樞, 經脈篇>의 是動病 所生病, 및 東醫寶鑑 五臟六腑門의 傷病證 및 虛實證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백단 송재훈 선생님의 五行和鍼法(腑方)을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和鍼法의 腑方은 五臟의 虛實圖에 의해서 類推가 가능하다. 이것은 河圖洛書의 陰陽배치와 腑病의 傳變인 相生원칙의 해서 결정된다. 둘째, 難經의 69難은 五行和鍼法 腑方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조문으로 五臟六腑 중 腑病의 治療原則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원리는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先補後瀉이다. 이것은 腑病이 相生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比較脈診法에 의해 木實金虛人 火實水虛人 土實木虛人 金實火虛人 水實土虛人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腑方을 적용시켜 기본 처방 및 각 五俞穴의 虛實이 결정된다.

참고문헌

1. 윤창렬. 하도와 (河圖) 낙서에 (洛書) 나타난 음양오행에 (陰陽五行)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논문집, 3(2):103-124, 1995.
2. 李槌. 新校 編註醫學入門 上. 大星文化社, p 180, 1996.
3. 허준.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 東醫寶鑑. 법민문화사, pp 300-302, 1999.
4.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難經本義. 주민출판사, pp 233-236, 2003.
5. 이종무, 조명래, 채우석. 難經75難을 이용한 五行鍼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8(2):123-135, 2001.

6. 金達鎬. 舍岩道人鍼法. 小康, pp 8-17, 2003.

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7. 감철우, 박동일.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臟方중심으로). 동의

19(2):363-364, 2005.